100여회 4억원 어치 '전선 大盜'

해남서 한전 일용직 출신 형제 붙잡아…전선 절도 '지능·기업형' 진화

8월까지 614㎞ 도난…광주·전남 전국 최다 발생

전선 도난사건이 '생계형 범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노인 인구가 많고 전기 사용이 적은 전남지역 농촌지역을 돌며 전선을 절도하는 범죄단이 '기업형'으로 진화하고 있고, 심지어 한전 전직 직원이 낀 전선 절도단까지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선절도사건이 발생해 대책이 시급하다.

28일 한국전력 전남사업본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5년 반 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만 전선 614㎞가 도난당해 한전이 관할하는 전국 16개 시·도중 가장 피해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전선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12억7천만원에 달했으며 복구 비용도 20억7천만원 이상 들어갔다.

전선 도난사건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범죄 수법도 전문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해남경찰은 최근 심야에 한전 소유 구리 전선을 상습적으로 훔친 양모(48)씨와 양씨의 동생(44)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 21일 해남군 마산면 농로 전신주에서 한전 농업용 구리전선 1.7㎞를 몰래 절단해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해남·보성·강진·장흥 등의 농촌지역만을 돌며 100여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전선을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한전에서 야간 전기수리공으로 일한 적이 있는 양씨는 동생과 함께 차량에 작업복과 신발, 절단기, 절연장갑, 안전벨트 등을 싣고 다니면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주택용이 아닌 농업용(양수기·스프링 쿨러 등) 전선만을 골라 훔쳐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훔친 전선을 고물수집상인 박모(여·40)씨에게 전선 구리 1㎏당 4천400원~7천원을 받고 팔아 넘겼다. 경찰은 전문 전선절도범인 이들이 인적이 드문 간척지와 야산 등지에 설치된 전신주의 농업용 전선만을 골라 훔쳐간 점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남지역에서는 올 상반기에만 180여건의 전선 도난사건이 발생했다.

도난사건은 정전사고는 물론 인명사고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초래된다. 하지만 한전 전남사업본부는 '모방범죄' 발생이 우려된다며 정확한 통계 발표를 꺼리는 등 사건 숨기기에만 급급했다. 한전은 ▲순시활동강화 ▲주민 신고제 운영 ▲포상금제 및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전선 도난을 막고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전직 직원이 낀 절도사건까지 발생해 인력 운용에 구멍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9월 30일 현재 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전선 절도범 검거건수는 30건(49명)이다. 지난해엔 모두 17건, 41명을 붙잡았으나 실제 발생건수에 대비해 검거 건수는 극히 미미했다. /이종행기자 golee@ /해남 = 박진표기자 lucky@

"황 이병 열등감·질책 때문에 범행"

육군 수사본부 'GP 수류탄 사건' 조사 결과

연대장·사단장 보직 해임

강원도 철원군 최전방 GP(전방초소) 내무반에서 수류탄을 던져 동료 부대원 5명에게 부상을 입힌 황모(20) 이병은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질책과 동기생에 대한 열등감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수사본부는 28일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황 이병이 내성적 성향과 반항적 기질로 선임병들과 잦은 마찰이 있었고 동기생보다 인정을 받지 못한 데 대한 질투심과 열등감이 있었다"며 "추운 날씨에도 휴식이 보장되지 않은 GP밖 환경정리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입대한 황 이병은 평소 동기생인 이 이병(중상자)이 선임병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으나 자신은 "동작이 느리고 근무수칙 등을 제대로 암기를 못한다"는 이유로 인정을 받지 못해 질투심과 열등감을 느껴왔다.

육군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GP장 김모 소위와 부GP장 김모 중사를 명령위반죄로 구속했으며, 사고 GP를 담당하는 6사단 조모 사단장(소장), 이모 연대장(대령),안모 대대장(중령)에 대해 지휘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했다.

황 이병이 자신에게 언어폭력과 폭행 등을 했다고 진술한 선임병 4명은 사실관계를 확인 후 처벌할 예정이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 29일 군 고위급 긴급대책회의를 주재, 근무기강 확립을 강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나원참 〈7665〉 김종두

생명권 보다 인간 존엄 우위

■법원 존엄死 첫 인정 의의

의료계 환영, 종교계 입장 엇갈려

법원이 28일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존엄사를 허용하는 첫 판결을 내리면서 존엄사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적으로 가열될 전망이다.

◇사법부 첫 인정=법원은 그동안 환자의 생명권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보다 우위에 두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997년 의식불명 환자로부터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사망에 이르게 한 '보라매병원' 사건에서도 가족과 의사에게 각각 살인죄와 살인방조죄로 유죄를 선고했었다. 병원 역시 법원의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연명 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거절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기존 법원의 입장을 뒤집고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우위에 두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준 의미있는 사례로 풀이된다.

◇의료계 환영분위기=의료계는 그동안의 숙원이 일부 받아들여졌다면서 대체로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료계는 그간 넓은 의미에서 소극적 안락사로도 볼 수 있는 존엄사를 인정해 달라는 입장을 입법기관 등을 통해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대한중환자의학회 고윤석 회장은 "이번 판결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의학자들끼리 존엄사에 대한 의사결정 시기 등에 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법제화를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혼란도 막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종교계 입장 엇갈려=천주교계는 신중한 입장 속에 인간 생명을 '집착적으로 연명하는' 경우라면 존엄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이동익 총무 신부(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은 "상황을 파악한 후 가톨릭의 견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개신교와 불교 쪽에서는 내부에서 입장이 갈려 있다. 개신교 보수 교단 측은 생명 연장 장치 제거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기증 운동을 펴는 교단에서는 존엄사를 옹호하고 있다. 불교계 역시 어느 한 쪽을 편들지 않는 상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美 쇠고기 판매 중단하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20명이 28일 오후 광주시 서구 L마트 상무점 앞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마트측에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다 충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시시 채택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사채 빚 고민 40대 목매

채무 문제로 고민하던 4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7일 오후 8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산동 송산 유원지 내 생활체육시설 배구 지지대에 A(42)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최근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사채 등 4천만원을 빌렸으나 계속된 경기침체로 가게 월세마저 내지 못하게 되자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살 직전 형에게 '가족들 볼 면목이 없다. 또 다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게 됐다. 먼저 떠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최후통첩'

교과부 "수정 안되면 발행 정지 등 검토"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2차 수정지시 공문을 보내 교과서 발행 출판사와 저자들을 다시 압박하고 나섰다.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교과서 수정 협의시한 마감을 앞두고 사실상의 '최후통첩' 의사를 밝힌 것으로 교과부는 수정지시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과서 발행 정지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28일 "지난달 30일 1차 수정 권고안을 출판사와 저자들에게 보내 답신을 받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 재차 권고하는 의미에서 5개 출판사에 공문을 다시 보냈다"며 "내용은 지난번 1차 권고안고 비슷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념 편향 논란을 빚은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을 위해 6종의 교과서 가운데 총 55건의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달 30일 각 출판사와 저자들에게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차 공문에서는 '수정 권고'라는 표현을 썼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강도를 한층 높여 '수정지시'라는 표현이 든 공문을 보내 교과부가 교과서 직권 수정을 위한 사전 절차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다음달 1일까지 출판사들로부터 2차 수정지시 공문에 대한 답신을 접수한 뒤 4~5일께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에 대한 교과부의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나이트클럽 영업실장 경쟁업소 찾아가 행패

광주광산경찰은 28일 경쟁업소인 나이트클럽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광주 L나이트클럽 영업실장 이모(34)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1월 28일 밤 9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H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H나이트클럽 김모(38) 전무 등 3명에게 욕설을 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가정폭력 목격 청소년 60% 학교폭력 가해 경험"

아버지나 어머니가 각각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목격한 청소년 60.3%, 59.1%가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사)광주 여성의전화가 지난 9월3일~17일까지 2주간 광주시내 중학교 2학년 남녀 학생 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학교 폭력예방을 위한 가정 폭력(언어,신체, 물리적)실태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조사대상 청소년 57.5%는 지난해 1회 이상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폭력을, 42.0%는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폭력을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또 53.5%는 1년에 1차례 이상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장 70.2%, 남편에게 폭력을 사용한 아내 42.7%가 자녀에게도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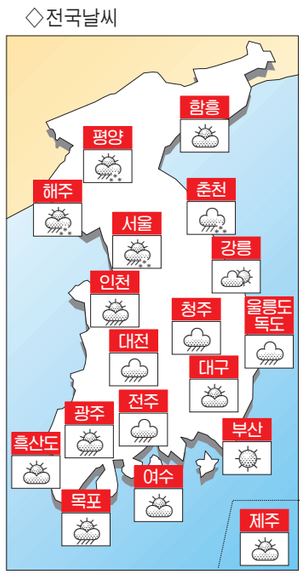
주말 비소식

11월 29일 (음 11월 2일) 날씨

아침에 안개끼는 곳이 있겠으며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 비가 조금 오겠다.

광 주	구름 많고 한때 비	3~9℃
목 포	구름 많고 한때 비	5~10℃
여 수	구름 많음	5~12℃
완 도	구름 많음	3~10℃
구 례	구름 많음	0~10℃
해 남	구름 많음	-1~11℃
장 흥	구름 많음	1~13℃
고 흥	구름 많음	0~10℃
순 천	구름 많음	0~10℃
영 광	구름 많고 한때 비	3~10℃
진 도	구름 많음	4~11℃
전 주	흐리고 한때 비	2~9℃
남 원	흐리고 한때 비	0~8℃
흑산도	구름 많음	8~10℃

◇전국날씨



서해남부
앞바다=서~북풍 파고 2.0~3.0m
먼바다=서~북풍 파고 2.0~3.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풍 파고 1.0~2.0m
먼바다=서~북풍 파고 1.5~2.5m

목 포 밀물 02:21 15:41 썰물 07:43 20:35
여 수 밀물 09:58 21:45 썰물 03:13 16:05

▲해뜸 07:21 ▲해짐 17:21 ▲달뜸 08:44 ▲달짐 18:1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0(일)	12/1(월)	2(화)	3(수)	4(목)	5(금)
날 씨						
최저/최고	-1/13	2/12	3/13	4/13	5/10	-2/6

경찰, 故안재환 단순 자살 결론

경찰이 지난 9월 숨진 채 발견된 탤런트 안재환 씨의 사인은 단순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 씨가 40억원의 사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가 사채업자들로부터 납치되거나 감금됐고 더 나아가 타살됐을 지 모른다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8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안 씨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안 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 외에 달리 타살된 것으로 의심될만한 단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4인조 복면강도 '주유소 습격 사건'

광양시 한 주유소에 4인조 복면강도가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새벽 3시50분께 광양읍 모 주유소에 4인조 복면강도가 쇠 파이프를 들고 들이닥쳐 현금 2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강도들은 주유소 직원들을 위협해 금고에 있던 현금을 꺼내 들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주유소 직원 2명이 강도들이 휘두른 쇠 파이프에 맞아 다쳤다. 경찰은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범인들을 쫓고 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서해해경청 수사관들이 28일 전주시내 주택가에 있는 비밀창고에서 신안 천일염으로 둔갑된 소금 포대를 압수하고 있다. 〈서해해양경찰청 제공〉

중국산 소금 신안 천일염 둔갑 판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8일 김장철을 앞두고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신안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일명 '포다갈이' 일당 김모(35·전북 전주시)씨등 3명을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해청에 따르면 김씨 등은 전북 전주 인근 한적한 주택가에 비밀창고를 만들어 놓고 중국에서 수입한 소금 약 26톤(약 870포대·시가 8천700만원)을 신안섬 웰빙 소금이라고 적혀진 30㎏들이 포대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전북 일원에 유통시킨 혐의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김장철을 앞두고 값싼 중국산 소금이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해 시장 또는 각종 음식점, 인터넷 등으로 판매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조양은에 억대 사기 '간 큰 의사'

쌍나팔

○… 전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58)씨에게 외제차 임대 보증금을 속여 1억2천만을 가로챈 간 큰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서형주 판사는 조씨를 상대로 외제차 리스 계약금을 부풀려 받아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3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조씨는 지난해 8월 영국제 고급 승용차인 벤틀리를 A씨 명의로 계약했는데 A씨는 리스 계약 심부름을 하면서 보증금 5천600만원을 1억7천600만원이라고 속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는 것.

○…조씨는 2005년 10월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의 이마를 재떨이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최근 확정돼 복역 중. /연합뉴스